

환경시대, 출판에도 '녹색' 바람

재생지 출판사례 늘어 … 수요 적어 가격 경쟁력 약한 것이 단점

출판업계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몇몇 출판사들이 버려지는 종이를 수거하여 만든 재생지로 책을 내기 시작했고 이 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버려진 책이나 인쇄물에서 잉크와 색소를 제거하고 표백하여 다시 활용하는 재생지 출판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격 저렴하고 파손도 적어

재생지를 사용한 책을 내서 성공을 거둔 출판사는 녹색평론(대표 김종철)과 녹색연합(대표 강문규), 박영률출판사(대표 박영률)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과 자연 공동체를 모토로 삼는 녹색평론과 녹색연합은 그들이 발간하는 잡지와 단행본에 차츰 재생지 사용을 늘리고 있다. 『녹색평론』 『작은 것이 아름답다』 등이 그런 정기간행물과 무크지이며, 『오래된 미래』 『우리들의 하나님』 등 단행본이 재생지로 만든 책들이다.

녹색평론에서 내놓은 『녹색평론』(격월간)과 『오래된 미래』와 같은 책은 표지와 내지가 모두 재생지로 만들어져서 중량이 아주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녹색평론의 편집위원 이임호씨(50)는 "재생지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종이값도 훨씬 싸다. 제지회사나 구매량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일반 미색모조지와 재생지의 가격차는 1연(전지 500장)에 4만 원 정도 난다"고 한다.

'일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

'내는 일'을 모토로 내세운 박영률출판사도 재생지 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를 양장본과 페이퍼백 두 가지로 낸 것을 시작으로 『섹스북』 『만득이 마니아』 등에 재생지를 사용했다. 이 출판사는 표지에 코팅이나 라미네이팅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재생지를 표지에 활용하기도 했다. 『와우』 『유나바며』 『진실과 정의의 즐거움』 『디자인 마케팅』 등이 재생지 표지의 책들. 각양각색의 책들 사이에서 거친 질감의 표지가 오히려 두드러져 보인다.

박영률출판사의 홍보담당 엄진섭씨(27)는 "재생지라 해도 파손이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표지에 재생지를 쓸 경우 도톰한 용지가 가볍고 튼튼하다. 코팅한 책에 비해 약간 긁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통상의 문제"라고 말한다. 출판사들이 화학약품 사용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책표지 코팅과 라미네이팅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책임이 있다. 총판과 도매상을 거쳐 지방의 서점을 돌고 반품이라도 될 라치면 그 과정에 책이 적지 않아 파손되기 때문이다.

외국서적의 경우 페이퍼백은 대체로 70~8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페이퍼백은 아직도 고급취향이다. 그래서 가끔은 재생지로 만든 외국 페이퍼백이 국내 번역서적보다 싼 경우도 생긴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경우 관세를 포함해 원서 페이퍼백과 국내 서적이 같은 가격

환경을 생각하는 몇몇 출판사들이 재생지로 만든 책을 내기 시작, 출판계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재생지로 만든 책은 가볍고 튼튼하며 종이값도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재생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어서 원서 구입이 활발한 현상을 빛기도 한다. 고려원의 경우, 페이퍼백은 판형과 활자크기를 줄이고 종이는 70g 모조지로 일반용지와 표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운시켰다.

수요 적어 소량생산으로 가격 비싸

우리나라에서 재생지 출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 고급용지를 선호한다는 점과 제작비가 크게 싸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재생지는 탈목공정을 거친 원료만 다를 뿐 종이를 만드는 공정은 일반용지와 똑같다. 그런데 재생지 수요가 많지 않으니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때문에 가격은 비싸진다. 특별주문용지의 가격은 일반용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신

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신문 면수와 발행 일수를 늘리는 바람에 신문용지 제작으로도 생산성이 빌 틈이 없는 상황에서 제지회사가 굳이 수요가 적은 재생지를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탓에 녹색평론도 한때 일반용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썼던 60% 재생지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일반용지를 쓰다가 좀더 구하기 쉬운 종이를 찾은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80% (폐지배합률) 재생지이다. 만화용지인이 종이는 그나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임호씨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재생지 출판물

방법론

A. 멘네 지음/김보현 옮김/224면/9,500원

정의의 방법, 구별의 방법, 나눔의 방법, 정당화의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과학의 작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과학도들의 필독서. 유비, 가정, 기호 사건과 기호 형태의 구별 등과 같은 과학적 언어에서 중요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현대 지식론

K. 레러 지음/한상기 옮김/384면/16,000원/양장

지난 30년간 지식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탐구 성과들을 기초론, 정합론, 외부론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들의 동기, 배경, 기본 주장, 장단점 등을 고루 기술하고 있어 현대 지식론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격이다.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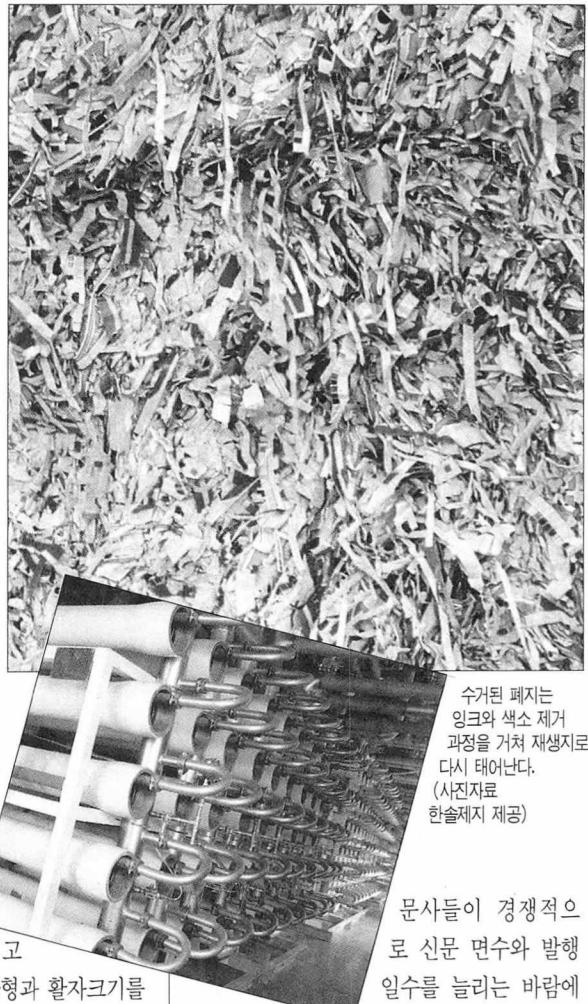
조용현 지음/320면/10,000원

철학적 관점에서 도구, 의식, 언어의 진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동물의 동시적·역사적·시간적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20세기 이후의 해부학, 고고학, 생물학 중심의 진화설에 철학적 사고를 덧입힌 작업이 관심을 끈다.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B. 몬딘 지음/허재윤 옮김/336면/11,000원

인간 존재가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들 즉 생명, 지식, 자유, 언어, 문화, 노동 등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 이어야 하는가?"라는 경험 철학적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수거된 폐지는 잉크와 색소 제거 과정을 거쳐 재생지로 다시 태어난다.
(사진자료: 한솔제지 제공)

책 사면 '벌금' 무는 나라

윤 청 광 · 동국출판사 대표

은 80% 재생지를 쓰고 있다.

이 80% 재생지의 앞날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만화책에도 고급화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서점 판매용 단행본 만화가 크게 늘면서 종이도 예전의 대본소용 재생지에서 고급모조지로 상향되는 추세"라는 것이 대원문화(대표 안현식) 편집부 이성환(30)씨의 말이다.

재생지의 단점은 개성적인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색이 어두워 컬러인쇄나 사진효과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사실 단행본에 컬러 사진을 싣는 사례도 드문 데다가 싶는다 해도 10%정도의 깨끗한 재생지를 쓰면 문제가 없다. 다만 수요가 적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이다.

한국제지 허인무(31)는 "재생지를 생산하는 제지업체는 많지 않다. 리사이클링을 위한 산업시설이 미비하고 폐지수집 등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생지 산업은 아직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재생지는 원료 자체는 싸지만 폐지의 수거·운반비용과 탈목비용 등 제조과정의 원료손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왕에 신문용지를 생산하던 업체 정도가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한솔제지 기술환경팀 이창훈 과장(36)은 "재생지는 수요가 적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생지를 만들기 위한 재활용 설비는 탈목설비와 폐수처리장을 포함해 1백억원 이상의 비용과 대규모 공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다.

일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8백만 톤 정도. 그런데 폐지 수집은 그 50%에 미치지 못한다. 수거가 이루어져도 아트지나 신문용지 골판지 등이 용도별로 분리수거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보관상태 때문에 종이질도 떨어진다. 폐지를 보관할 넓은 창고는 고사하고 대충 부려 놓을 공터조차 부족해 제지회사에서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재생지 활용 출판이 늘어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제지업체들은 폐지를 상당량 수입해서 쓰고 있다. 왜냐하면 수입폐지가 싸고 질기며 보관이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 폐지는 물류창고처럼 제대로 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들여오는 반면 우리 폐지는 공터에 방치된 채 눈비와 바람을 맞고 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섬유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귀중한 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는 종이가 이런 비효율적인 여건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생지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수요, 취약한 가격경쟁력, 폐지수거의 비효율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과제이다. 제지업체도 딤플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발맞추어 '수요가 있다면 생산한다'는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출판사의 노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수요가 늘어난다면 재생지 역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고 비쌀 이유가 없다.

— 마정미 기자

책을 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나라가 있다면 아무도 골이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문민정부' 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강행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이제는 현금 대신 가지가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이른바 신용카드의 시대인데, 신용카드로 책을 사고 팔면 어김없이 벌금 아닌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골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불금액의 1.5%를 신용카드회사에서 수수료로 떼어가고,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어도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지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연금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1.5%의 수수료만 공제된다. 같은 신용카드로 농산물을 사도 수수료는 1.5%.

그런데 신용카드로 책을 사고 팔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무려 3.5%나 된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책 사는데 벌금을 물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책을 판 서점이나 출판사는 3.5%를 고스란히 신용카드회사에 빼앗기고 있으니, 얼핏 보면 서점이나 출판사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엄청난 3.5%의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인 독자의 몫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갈수록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가는 추세이고 보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수수료 때문에 서점과 출판사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책값을



윤 청 광 사장

그만큼 올리거나 마진율의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결국은 그 폐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전한 소비를 권장하고 불건전한 소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외쳐왔지만 골프 치고, 드라이브하고, 소비상품 사들이는 데 신용카드를 쓰면 1.5%의 수수료만 받으면서 유독 책을 사는 데는 3.5%의 수수료를 떼어가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가장 건전한 소비, 가장 권장해야 할 소비가 바로 책을 사보는 일인데, 혜택을 주기는커녕 벌금 아닌 벌금까지 떼어가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책 많이 읽는 국민이 되어 지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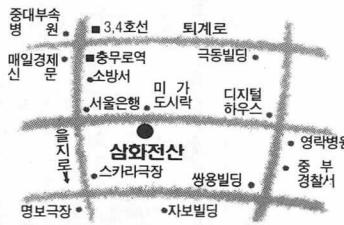
21세기는 정보화시대요, 정보화시대는 곧 지력(知力)의 시대요, 지력의 시대는 독서 없이는 이를 수 없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책 사면 벌금 무는 나라' 만은 면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IBM분판·윈도우용 아래아한글 전문출력

..... 호글프로 96, 호글3.0B, 도스버전

24시간 출력

- 4도분판 코렐, 포토샵, pagemaker
- 단 도 호글96·3.0B·도스, 워드
- 프린트 호글, 한글워드, 훈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삼화전산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 8

이런분을 기다립니다

- 윈도우용 호글의 출력이 않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호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호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출력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